大學教養課程과 教授像

全州敎大 學長 李 址 烈

I

數年來 계속된 대학의 騷擾는 직접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는 물론이고, 학부모, 국민 모두가 대학의 權威와 그 실태에 憂慮를 표시하게 하였다.

騷擾當事校의 교수가 아니더라도 대학의 敎壇에 선 사람이라면 一次 누구나 그에 대해 고민하고, 또한 자신의 能力의 한계를 느끼리라고 본다. 이런 의미에서 대학은 理念上에서나 經營管理上에서 그리고 硏究上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근무하는 대학이 騷擾의 渦中에 있거나 또는 그렇지 않거나간에, 장기간에 걸친 대학 소요라는 불행한 상황은 대학의 敎授·指導·硏究遂行에 지장을 준 감이 있고,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가 조용하다고 해서 彼岸의 火災를 구경하는 양 안심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다시 한 번 대학의 權威와 교수로서의 處地를 돌이켜 보게 한다.

대학이란 무엇인가, 學問硏究란 무엇인가, 자신은 대학에서 學問과 敎育을 할 만한 사람인가, 大學行政을 맡을 만한가 등등 실로 그 反省이 앞선다.

이러한 고민은 비단 대학의 騷擾에서만은 아닐 것이고, 모든 분쟁에 처했을 때 사람마다 대처하는 방법은 각자 다를 것이고 千差萬別하리라고 본다.

교수들은 직접 소요의 와중에 뛰어들어 대모隊의 앞 길을 막든지, 주동학생을 불들어 설득과 대화를 한다든지, 이데올로기를 놓고 대결을 한다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行政的 責任을 지고 補職을 辭任한다든지, 참으로 형용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

한편 文敎當局은 대학에 自律權을 주어 학원문제는 학원 안에서 자율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랬고, 모든 학생들을 지난 해의 學年初에 학원으로 다시 되돌린 바 있었다. 그러나 學園騷擾는 가라앉지 않았고, 학생들의 學徒護國團 廢止 요구와 學生自治會 復活 요구 등의 거센 바람은 급기야는 政黨舍屋 내의 籠城, 學期末試驗 거부 등 가슴을 아프게 하는 불행한 사태까지도 몰고 왔었다.

각 대학의 當局이나 敎授들은 이와 같은 학원의 불행한 사태에 대해 그 원인을 규명하고 그 收拾策을 강구하기 위한 學·處長會議를 거듭했으며, 또한 補職會議, 全體敎授會議, 問題學生과의 대화·상담은 물론이고 그들의 학부모와 만나기도 하는 등 실로 間斷 없는 노력을 해왔다.

II

세계적 추세에서 본 大學改革은 한마디로 말

해서 대학의 管理·運營의 민주화요, 敎權의 독립이요, 學生自治權의 확장이요, 硏究機能의 다양화요, 국제화이다.

이 같은 세계적인 추세의 敎育改革의 관점에서 생각할 때, 교육개혁은 韓國만의 문제가 아니고 더우기 대학만의 문제도 아니다. 필연적으로 교육개혁은 幼稚園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家庭敎育에서 社會敎育·平生敎育에 이르기까지, 敎養敎育에서 專門·職業敎育에 이르기까지, 대학내의 硏究機關에서 모든 産業施設, 硏究團體의 硏究機關에 이르기까지 전반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다.

이러한 地球村의 敎育改革은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의 문제이다. 이에 대처하는 방향이나 방법도 각국의 敎育制度가 相異하므로 각국별로 대응해야 할 것이지만, 우리의 실정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緊迫하다고 본다.

급격한 經濟成長과 社會福祉의 향상, 高學歷社會의 추세와 대학의 大衆化, GNP의 상승과 國民意識의 향상 등 先進工業國 대열에의 참여 등은 필연적으로 敎育制度를 조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初·中·高·大學의 學制를 비롯하여, 고등학교·대학의 入試制度는 물론이고, 早期敎育·英才敎育·敎育施策·國際化와 科學技術에 적합한 敎育內容과 敎科書 편성 등 실로 山積된 개선점이 있다고 본다.

Ⅲ

本稿에서는 이러한 많은 개선점 중에서 대학의 敎養課程과 이와 관련지어 敎授像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교육의 역사를 살펴보면 大學敎育의 목적을 직접적인 實用교육의 관점에서 보려는 경향과 長久한 人生에 대한 準備로서 보려는 두 가지 경향이 있다. 前者는 학생이 배운 것을 현재나 졸업 후에 직접 有用하도록 敎育課程을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비해, 後者는 교육을 職業보다는 긴 인생을 위한 준비로 보고, 善良하고 敎養 있는 有能한 개인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兩者의 입장은 일치되는 점이 있으며, 또한 大學의 敎養課程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다고 주장되기도 한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유용한 성격의 교육이나 職業訓練을 목적으로 한 교육은 敎養敎育의 목표에는 실질적으로 공헌을 할 수 없으리라고 본다. 우리나라 文敎部의 敎養課程準則이나 美國의 學士課程大學의 敎育課程도 이와 같은 兩者의 견해에서 본다면, 폭넓은 敎養人을 志向하고 있지만 충분치는 못하다고 본다.

반면 학생이나 학부모는 대학교육을 就職을 위한 과정으로 보고 있고, 학생 중에는 知識欲이 왕성하여 폭 넓은 知識世界를 탐구하려고 하는 학생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은 빨리 專門課程을 履修하기 원하며, 개중에는 人文系科目(윤리·철학·사회학·역사·국어 등)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가 하면, 반대로 人文系列의 학생은 과학·수학 등을 피하려고 한다.

企業이나 商業에 진출하려는 학생 중에는 學士(敎養人) 호칭을 받으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敎養敎育의 어떤 필요성을 더 느끼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이들은 순수한 學問的 知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출세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것 같다. 즉 성공이나 출세를 약속해 주는 교육을 더 원하는 추세에 있는 것 같다.

한편 大卒 新入社員을 채용하는 공공기관, 기업 등에서도 대학생들의 哲學, 歷史, 文學, 藝術 등에 관한 지식(敎養)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반면에 "지금 어떤 技術을 갖고 있느냐", "어떤 專門性을 가졌느냐"를 묻게 되어, 좁은 技術敎育, 職業專門敎育이 졸업생들의 첫 職業을 얻는 데 유리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20년이 지난 후, 높은 지위에 오르려고 했을 때는 敎養과 人格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리라는 것은 明若觀火하다. 즉 高位職에서는 "현명한 意思決定을 할 수 있는가", "중대한 事態에 심사숙고할 수 있는가", "社會의 複雜性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가" 등이 문제가 되리라고 본다.

이렇게 본다면 폭 넓은 敎養敎育은 어떠한 專門技術敎育보다도 훨씬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물론 장차 높은 지위에 오를 자를 양성하기 위

한 것이 敎養敎育課程의 첫째 목적이 아닌 것만은 확실하나, 출세나 또는 성공을 위해서도 專門敎科에 못지 않게 敎養敎科가 중요함을 지적한 것뿐이다.

專門技術敎育만을 받은 자는 그 기술이 社會變動이나 技術發展에 의해서 시대에 뒤지게 되면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버린 것이다. 그러나 敎養敎育을 받은 사람은 많은 직업의 기초가 되는 原理를 이해하고,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타입의 生活樣式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알고 보면 敎養敎育은 2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으며, 인간의 無知·偏見·偏狹性 등의 속박에서 인간을 해방하는 교육인 것이다. 이는 세계를 전체적으로 보는 눈을 기르고, 자기 자신을 觀照하는 능력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家庭人으로서, 職業人으로서, 選擧人으로서, 현명하고 自主的인 意思決定을 해야 하는 自由人으로서 가장 적절한 교육인 것이다.

Ⅳ

취직을 위해서 자신은 물론 부모로부터 강한 압력을 받고 있는 대부분의 대학생은 就職試驗에서 제외되는 敎養科目을 피하고 즉시 유용한 實用的인 職業敎科나 專門敎科를 원하게 된다. 이러한 추세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균형있는 大學敎育이나 民主社會의 自由人을 지향하는 大學敎育理念을 추구한다면 교양교육이야말로 學士證을 주는 필수적 조건인 것이다.

교양이 부족할 때 대학인은 利己的이고 偏狹한 인간이 되기 쉽다. 自由人으로서의 人格的 대학인이 되려면 적어도 다음과 같은 여러 점에서 그 資質과 識見이 고려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敎養敎育을 받은 사람은 말하고 쓰는 것도 명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람은 言語感覺을 가지고 표현의 明快性이나 率直性을 지닐 것이고, 외국어도 유창하게 구사할 것이며, 數量的 계산도 능숙하겠고, 합리적·논리적·객관적 思考를 할 것이며, 事實에 대한 생각·판단·느낌·종합·분석 등도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論理的인 것뿐 아니라 상상적·독창적인 着想도 용이할 것이다. 이러한 敎養人·自由人은 사물을 민감히 파악하는 예리한 洞察力과 풍부한 정서로써 自然界와 人間社會와 文化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된다. 이는 단순한 博學이 아니라 바른 分別과 判斷으로 자신의 지식과 인격에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러한 敎養人·自由人은 자신의 직업이나 가정생활·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인 관련을 생각할 것이고, 업무적인 것이든 개인적인 것이든 하나의 意思決定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충분한 思慮를 가지고 조화로운 행동을 취할 것이며, 자신과 직접 관계가 없는 諸問題 또는 時空의 격차에서 오는 文化나 價値에 대해서도 洞察力과 問題意識으로 대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敎養人·自由人·人格人은 생활에 대한 신념을 갖게 될 것이고, 그 신념은 附和雷同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신념이 반드시 증명되기란 어렵겠지만 대학의 敎養敎育이 志向할 바라고 본다.

한편 他人의 생각에 대하여 관대할 것이며, 誠實을 尊重하고 어떤 思想이나 이데올로기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 아닌가 싶다. 즉 확고한 價値觀을 갖고 言行一致한 垂範을 보일 것이며, 높은 理想은 자기 만족에서 그치지 않고 사회에 봉사하며 神에 歸依할 것이며, 重大事에 직면했을 때 획일적으로 틀에 박힌 處身을 피할 수 있겠고, 上述한 諸特性을 공유하면서도 각자 독특한 인간성을 가지게 되리라고 믿는다.

Ⅴ

이렇게 본다면 대학의 敎養課程의 중요성은 참으로 헤아릴 수 없고 교양교육은 專攻敎育이나 職業敎育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대학들이 교양교육을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뿐만 아니라 이런 경향은 교양교육을 담당한 교수 자신의 士氣와도 관련되고 專攻敎科를 지도하지 않거나 專攻學科가 없는 敎養學科(部)마저도 輕視되는 경향이 있다.

대학의 敎養學部가 活性化되고 철저한 敎養敎育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오늘날과 같은

대학의 불행한 騷擾事態도 극복되어질 것이 아닌가 싶다.

다만 敎養敎育의 중요성은 그 누구나 大學人이라면 수긍이야 하겠지만 어떤 敎科目을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다.

이런 관점에서 美國의 폴 우드링(Paul Woodring)이 『美國의 高等敎育의 再評價(The Higher Learning in America; A Reassessment)』에서 披瀝한 것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기로 한다.

(1) 敎養敎科目 내용은 永續性이 있어야 하며, 그때 그때의 記述的이거나 政策的인 것이어서는 안 된다. 즉 抽象的 原理, 基礎原理, 藝術, 人生의 意義와 價値 등 모든 探究가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하고 方法主義的인 과목은 조건에 합당치 않다.

(2) 敎養科目 내용은 自己完結的이어야 한다. 즉 언제 시작하여 언제 끝날는지 모르는 斷片的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즉 과정이 제 아무리 짧은 것이어도 問題提起에서부터 過去·現代의 英智와 관련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科目이 끝날 무렵에 문제의식이 생기도록 하며, 그 해답이 얻어질 수 없을지라도 이에 의해서 학생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학생들이 당시에는 應用을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었어도, 이로부터 어떤 環境에 처하더라도 인생을 밝고 새롭게 살 수 있는 지혜를 터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未久에 또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敎養敎育은 一種의 共通言語와 마찬가지인 것이어야 한다. 職業語 외에 누구나 쓸 수 있는 언어를 습득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專門分野는 공통적으로 理解可能한 지식의 축적에 공헌해야 한다.

實際問題로서 지식이 넓은 사람은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지구과학, 인류학, 심리학, 사회학 등에 흥미를 갖지만 專門家가 아닌 사람에게는 어떤 選擇의 基準이 있어야 할 것이다.

高度의 내용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敎養敎育的인 것이 될 수는 없다. 즉 과학이나 사회학이 고도의 내용을 갖는 것이라면 이는 이미 敎養敎科의 차원을 넘어선 것이 되고 만다. 지나치면 같은 분야의 專門家끼리도 대화가 막히고 만다. 즉 교양교육은 더욱 발전적인 思考와 創造에 근거하여 어느 학생에게나 어느 정도 受容·理解될 수 있는 一種의 知的 通貨이어야 한다. 필자가 연구했던 日本 筑波大學의 敎養科目은 人文·社會·自然에 각각 單一科目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몇 가지 영역에 걸쳐 종합적으로 개설하여 一般敎育科目으로 충당하여 綜合的인 觀念·思考力을 기르며, 새로운 學問領域에 대한 動機誘發을 기했고, 情報處理가 一般科目과 基礎科目에 들어 있었다.

다음에 또 참고로 日本의 東京大學의 1978년의 제1학기에 실시된 綜合科目(敎養講座)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無限과 有限(序論)
② 宗敎에 있어서의 無限과 有限
③ 歐羅巴에 있어서의 發展과 律動
④ 數學에 있어서의 無限과 有限(Ⅰ. 희랍부터 칸토르까지, Ⅱ. 칸토르부터 코오헨까지)
⑤ 古典力學으로부터 量子力學으로
⑥ 宇宙는 有限인가 無限인가
⑦ 神歐圈와 自然科學
⑧ 生物學에 있어서의 無限의 追放
⑨ 經濟學에 있어서의 無限과 有限(Ⅰ. 아담 스미드와 마르크스, Ⅱ. 永久運動과 에네르기)
⑩ 歷史 안에 있는 美術(作品의 有限性과 永遠性)

등이며, 이를 1학기 12주에 걸쳐 강의한다는 것이다. 이 이외에도 인간생활과 학문, 가치와 목적, 시간과 인간, 시간과 진화 등이 있다.

美國의 노트르담大學校 總長 디어도 엠 헤스버그 博士가 주장한 敎養敎育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價値를 배운다는 것은 언제나 어려운 일이며 敎養敎育 없이는 불가능하다. 워터게이트 사건의 主役들이 美國의 최고 名門大學을 나온 秀才들이었다는 사실은 오늘날 價値觀이 없는 機械的이고 技術的인 良心만이 높이 평가되는 技術文明社會의 병폐를 여지없이 반영한 것이다."

이와 같은 技術文明의 불행은 敎養敎育의 결

함에서 찾을 수 있고, 하바드대학을 비롯한 世界大學들이 敎養敎育에 비상한 관심을 쏟기에 이른 것이다.

Ⅵ

이상에서 대학의 敎養敎育의 중요성과 그것의 성격·내용 등을 槪觀했으나 이러한 敎養學部나 專攻敎科의 담당 敎授像은 어떠한지 생각해 보자. 그간 우리의 실정을 미루어 볼 때 高學歷社會에 따른 大衆敎育도 필요하지만 質의 문제가 더욱 중요해졌다.

敎授·學習의 質은 바로 학생의 敎育成果에 직결될 것이고, 敎授像이 학생의 人格形成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리라고 본다.

대체로 대부분의 典型的인 敎授는 學部學生들의 종합적인 교육이나 敎養敎育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려고 않는다. 매일 학생을 가르치면서도 자신은 자기 專攻分野에 대한 學者임은 강조하지만 자기와 다른 他領域을 전공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기 쉽다. 학생들은 교수의 이러한 偏狹한 태도가 어딘지 불만스럽지만 어느 사이에 그러한 영향이 학생으로 하여금 專攻分野에만 관심을 갖도록 만들어 버리고 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따라서 知的 호기심이 강한 학생은 問題意識을 갖게 되고, 교수의 지도에서 해답을 얻으려고 했지만 때로는 실망을 맛보게 되고 만다. 그리고 지나치면 학생의 질문과 흥미(관심)의 妥當性마저도 이해하거나 수용하려고 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우수한 학생들은 學部敎育을 통해서 참으로 구하고자 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게 되기도 한다.

한편 교수에게 負荷되거나 기대되고 있는 役割은 무엇일까? 학생을 가르쳐야 하고, 지도해야 하며, 연구해야 하고, 地域社會의 文化活動을 통해서 봉사해야 하는 것 정도는 누구나 알고 있는 일이다. 즉 교수로서 學習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學者로서 專門分野의 연구를 통해 學界에 공헌을 해야 하며, 학생의 人生과 생활지도까지 해야 하며, 학교 이외의 文化活動에도 참여를 통해서 봉사도 해야 한다. 이러한 多機能의 역할이 가져오는 대학생활의 緊張은 커다란 壓力이 될 수밖에 없다.

多才多能한 사람이라도 실로 벅찰 수밖에 없다. 거기에다 대학 교수의 제1의 義務는 學問의 進步를 기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더우기 知識 수명이 단축된 오늘날에 있어서는 時間的 압력마저 크게 받게 된다. 그리고 연구한 것을 不斷히 발표해야 하고 출판할 것을 요구당하기 때문에 자신의 에너지의 대부분을 硏究와 學問的인 일에 소비할 의욕이 없는 사람은 挫折感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

한편 다른 職業人들에 비해서 교수는 획일화나 어떤 틀 속에 가두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며, 자유롭기를 바라고, 學者로서의 어떤 타입을 갖게 된다. 典型的이고 平均的인 敎授는 분명히 實業家(社長)나, 醫師나, 政治人 등과는 다르다. 즉 大學敎育은 그 내용이 개개의 교수의 성격에 의해서 크게 좌우되고, 學長이나 學科長이 어떠한 公言을 해도 강의실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리면 어떤 것을 가르쳤건 교수 권한에 속하고 만다. 따라서 개개 교수의 嗜好나 世界觀이나 特性이 크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의사나 이발사는 면허증을 걸어 놓지만 교수는 學位證을 硏究室에 걸어 놓지는 않는다. 남이 호칭할 때에는 博士라고 하지만 스스로는 박사란 말을 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편지 끝에 署名할 때에도 박사라고 學位를 적어 넣는 일은 거의 없다. 이러한 謙讓之德으로 묵묵히 硏究와 社會正義를 실천하는 데 앞장서는 것이 敎授像이 아닌가 한다. ※